

김영록·장만채 18·19일 결선투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1차 경선...신정훈 탈락
김영록 40.9%·장만채 32.5%·신정훈 26.6%

전북지사 후보에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6월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록·장만채 후보가 1.2위를 각각 차지해 결선투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남지사 후보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및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0.93%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이 32.50%로 뒤를 이었다.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26.58%를 얻어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18~19일 김영록·장만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김영록 후보는 "적극 밀어주신 도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결선투표 역시 도민과 당원들만 믿고 묵묵히 나아가겠다"며 "어떤 비방과 흑색 선전, '가짜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저만의 정책과 검증된 공약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후보는 "도민과 당원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어 "지금은 경쟁하지만 모두가 민주당원이다. 비방이나 네거티브를 철저히 배격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사람을 세우는 전남, 자연과 함께하는 전남, 미래를 약속



김영록 후보 장만채 후보

하는 전남을 일구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지사 결선은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된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후보 지지층과 동부권의 표심 향배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신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떤 후보로 쏠리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더라도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탈락한 신 후보 지지자들이 2위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면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선을 앞둔 이틀간 1·2위 후보들의 '3위 표심 잡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선투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투표 5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송하진 후보, 제주지사 경선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각각 승리해 당 후보가 됐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송 후보가 56.92%로 김춘진 후보(43.09%)를,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선 문 후보가 56.31%로 김우남 후보(43.69%)를 각각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기아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되자 관중들이 아쉬워하며 경기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날 경기장이 위치한 광주 북구 임동은 오후 1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414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151 $\mu\text{g}/\text{m}^3$ 를 넘으면 '매우 나쁨' 상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기정·양향자·이용섭 민주 경선 막판 총력전

18~20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오늘 오전 TV토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사를 앞둔 15일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예비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민주당 광주시장에 따르면 광주시장 경선은 18~20일 치러지며, 일반 시민여론조사(50%)와 권리당원 ARS투표(50%) 결과를 합산해 1위 후보를 결정한다. 또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오는 23일~24일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9시 45분부터 90분 동안 광주MBC 공개홀에서 TV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14~15일 바쁘게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당일 투표에 대비,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민형배·최영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강기정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양향자 후보는 SNS 동향 분석 등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를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용섭 후보도 주말과 휴일 광역·기초의원 임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특히 TV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은 전략 마련과 공약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15일 광주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밝혔다. 후보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시민과 의 충분한 대화와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월호 4주기 추모 물결

문대통령 "진실 끝까지 규명"...목포신항 참사 기억 다짐대회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합동 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며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가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은 국민이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며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며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됐다"며 "춥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고, 저로서는 정치를 더 철학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물결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에선 참사를 기억하는 다짐대회가 열렸으며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4주기 국민 참여행사가 열렸다.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행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진도실내체육관과 진도항 등에서 열린다. 진도실내체육관에서는 진도 씨깡궁 공연과 추모 영상 상영 등의 추모식이 치러지며 진도항에서도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의 추모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재테크 ▶18면
동네 책방-도교 진보초 거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최악의 미세먼지...프로야구도 삼켰다

울췌 경보 발령...KIA 경기 취소

15일 광주·전남에 최악의 황사가 나타나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치솟아 역대 두번째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관련기사 7·20면>

이날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016년 5월 7일 이후 709일 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으며,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 등 수도권(129 $\mu\text{g}/\text{m}^3$ ·오후 2시 평균)의 4배 가까운 426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광주지역에 첫 경보가 내려질 때 미세먼지 수치는 1일 평균 473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목포 등 전남 12개 시·군에도 이날 오후 1시 이후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최악 미세먼지로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롯데전이 취소돼 1만5000여 관중이

발길을 돌렸다. 미세먼지로 인한 광주구장 KIA의 경기 취소는 프로야구 출범 이래 처음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6일에는 미세먼지 경보는 발령되지 않겠지만, 정체돼 있는 황사 등의 영향으로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2018 전국 대학생
소통콘텐츠 개발
경연대회
contents.gwangju.go.kr

참가 자격 | 전국 미디어·광고·홍보 관련 학과 대학생
※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 구성 필수(팀원 수 제한없음)

콘텐츠 주제 | 광주 도시브랜드 관련 자유 주제

제출 분야 | 영상 부문 및 비영상 부문

제출 기간 2018. 8.10 ~ 8.17(1주간)

제출 방법 | contents.gwangju.go.kr (우편 방문접수 불가)

문의처 |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추진단 062) 613-6246

※기타 자세한 요강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진춘이 상상한다. "광주는 00이다!"**